

# 재진-지성-기현 삼각편대 '남미 사냥'

## 오늘밤 8시 상암벌서 우루과이와 친선경기

한국 축구대표팀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중사 등 해외파를 총동원해 남미 강호 우루과이 사냥에 나선다.

필 베퍼백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4일 오후 8시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알바로 레코바(인터 밀란) 등 정예 멤버로 팀을 꾸린 우루과이와 친선경기를 갖는다.

지난달 7일 영국 런던에서 2004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챔피언 그리스를 1-0으로 꺾고 산뜻하게 한 해를 시작한 베퍼백호는 이번 우루과이전을 통해 상대 전적 3전 전패의 수모를 되갚고, 1999년 이후 8년 동안 이어져 온 '남미 징크스'(4무5패)도 깨뜨리겠다는 각오다.

우루과이전 선발 라인업은 그리스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다. 일단 베퍼백 감독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설기현(레딩FC), 이영표(토트넘)를 포함해

해외파들을 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전처럼 최전방 원톱에는 2006 독일 월드컵부터 대표팀 주전 자리를 확실히 꿰찬 조재진(시미즈)이 버티고 좌·우 윙포워드로 프리미어리그 박지성과

### 예상 베스트 11(4-3-3)



설기현이 배치된다.

그리스전에서 처진 스트라이커 겸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그림같은 프리킥 결승골로 1-0 승리를 안긴 이천수(울산)는 다시 한번 공격의 물꼬를 트는 중책을 맡는다.

중원에서는 일본 J-리그에서 3경기 연속골을 터트린 김정우(나고야)와 러시아 리그의 이호(제니트)가 공·수를 조율한다.

포백 라인도 그리스전과 마찬가지로 좌·우 풀백에 이영표(토트넘)와 오범석(포항)이 서고, 중앙에 김진규(전남)와 김상식(성남)이 선발 출전해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그리스전에서 선방을 펼치며 무실점 승리를 이끈 김용대(성남)는 김영광(울산)을 제치고 다시 한번 골문을 지키기 가능성이 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지성>



<설기현>

### 우루과이는 어떤 팀

축구 국가대표팀의 올해 두 번째 A매치 상대인 우루과이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6위(한국은 48위)의 남미대륙 전통의 강호다.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끈 호주 대표팀과 플레이오프에서 승부차기 끝에 고배를 들며 2006 독일 월드컵 본선 무대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역대 월드컵 본선에 10차례 나서 두 번(1930년, 1950년)이나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한국 대표팀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 FIFA 26위... 주전 대부분 유럽 활약

본선 조별리그(0-1 패)를 시작으로 우루과이와 역대 세 차례 맞붙어 모두 패했다. 2002년 2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 1-2로 졌고, 2003년 6월 서울에서 치른 평가전에서도 0-2로 무릎 꿇었다.

우루과이는 2005년 11월 열린 독일 월드컵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호주에 본선 진출권을 빼앗긴 뒤 물러난 후안 라몬 카라스코 감독에 이어 지난해 3월 오스카 타바레스

감독에게 대표팀 지휘봉을 맡겼다.

이번 방한한 우루과이 대표팀은 '원발의 달인' 알바로 레코바(인터 밀란)를 비롯해 수비수 다리오 로드리게스(살레르나), 미드필더 파블로 가르시아(셀타 비고), 골키퍼 파비안 카리니(인터 밀란), 공격수 파비안 에스토야노프(데포르티보) 등 주전 대부분이 유럽리그에서 뛰고 있는 정예 멤버로 구성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마린보이' 박태환 세계 정벌 나선다

### 세계수영선수권 자유형 200·400·1,500m 출전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이 드디어 세계 정벌에 나선다.

도하 아시안게임 수영 3관왕에 올라 아시아 자유형 최강자로 거듭난 박태환이 25일(이하 한국시간)부터 제12회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경영 자유형 200m와 400m, 1,500m에 출전한다.

장소는 호주 멜버른 출신의 전설적인 테니스 스타 로드 레이버를 기리기 위해 만든 '로드 레이버 아레나'. 박태환은 고1이었던 2005년 몬트리올대회 때도 세계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자유형 200m와 400m 두 종목에 나갔는데 200m는 1분49초70으로 20위에 그쳐 16위까지 나가는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400m는 더 안 좋았다. 4분04초75로 42위. 아직 '덜 여문'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은 사정이 다르다. 지난해 8월 범태평양대회에서 금 2, 은메달 1개를 따며 세계적 스타로 발돋움했고 아시안게임에서는 아시아 수영을 제패하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 박태환은 세계적 강자들의 실력을 느끼는 동시에 베이징올림픽 메달

가능성을 가늠할 수도 있다.

25일 경영 첫날 자유형 400m로 스타트를 끊는다. 오전 예선을 통해 8명을 추려낸 뒤 오후에 결승을 치른다.

400m는 1,500m와 함께 박태환의 주종목이다. 범태평양 대회 때 아시아신기록인 3분45초72를 기록, 클레트 켈러, 피터 밴더케이(이상 미국)를 제압하며 우승해 입상 가능성이 크다.

이어 자유형 200m, 박태환은 애초 이번 대회에서 400m와 1,500m에만 출전하려 했지만 미국의 수영 신동 마이클 펠프스가 나온다는 걸 알고 과감히 출전 신청을 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10년 동안 최강자 자리를 지켜온 그랜트 해켓(호주)과 자유형 1,500m 맞대결이다. 해켓에게는 2005년 말 어깨 수술을 받은 뒤로 처음 참가하는 메이저 대회여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박태환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 있지만 라센 젠스(미국), 유리 프릴루코프(러시아), 데이비드 데이비스(영국) 등 '만년 2인자'들이 해켓 타도를 외치고 있어 절대 만만치 않다.

### 25일(일)

▲06/07 NBA(마이애미-필라델피아)(08:30·SBS스포츠)

▲수원컵 국제 청소년 축구(한국-폴란드)(12:10·KBC)

▲일본 프로야구 시범경기(요미우리-히로시마)(12:50·SBS스포츠)

▲프로야구 시범경기(SK-삼성)(13:00·MBC ESPN)

▲06/07 V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삼성-현대)(14:10·KBS1)

▲프로농구(KTF-전차팬드)(14:50·Xports)

▲06/07 V리그 챔피언 결정전 여자부 2차전(16:00·KBSN SPORTS)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 PO 2차전(삼성생명-우리은행)(18:00·SBS스포츠)



24일(토)

▲06/07 NBA(디트로이트-샌안토니오)(09:00·MBC ESPN)

▲프로야구 시범경기(SK-삼성)(13:00·MBC ESP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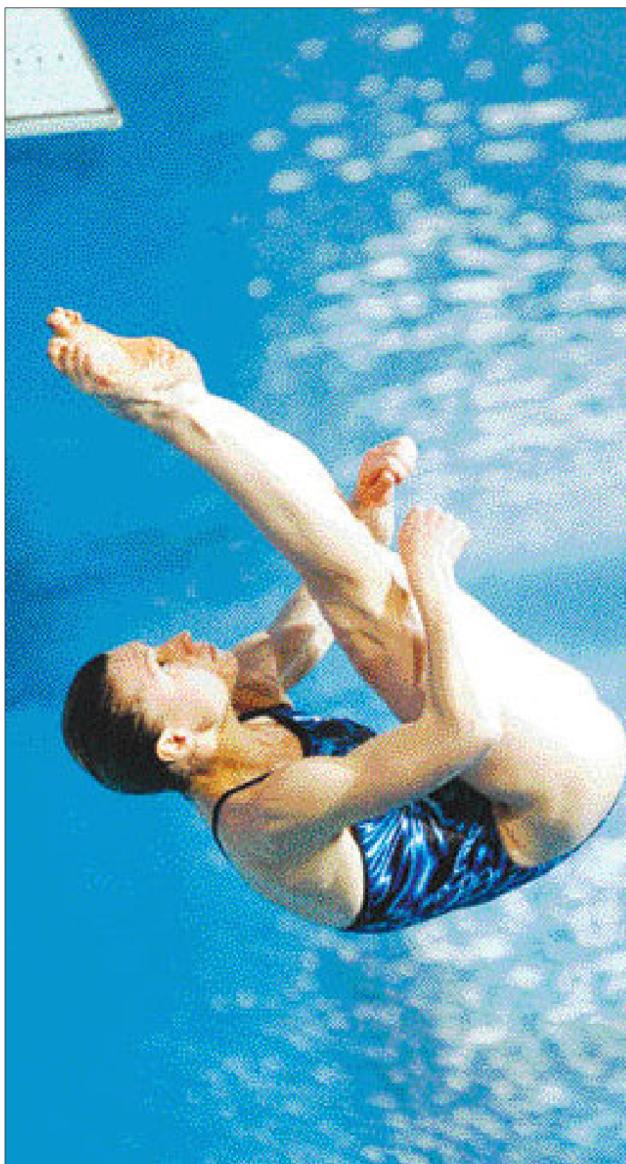
▲06/07 V리그 챔피언 결정전 남자부 1차전(13:40·KBSN SPORTS), 여자부 1차전(16:00·KBSN SPORTS)

▲일본 프로야구 시범경기(요미우리-히로시마)(14:50·SBS스포츠)

▲프로농구(동부-SK)(14:50·Xports)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 PO 2차전(18:00·SBS스포츠)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한국-우루과이)(19:55·MBC)



### "날으는 새 처럼"

러시아의 올리아 파칼리나가 23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수상경기챔피언대회 다이빙 준결승에서 입수전 멋진 공중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탱크' 최경주 출발이 좋다

### PGA 월드골프챔피언십 1R 1언더파 7타 공동 10위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시리즈 CA챔피언십 첫날을 공동 10위로 시작했다.

최경주는 23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도랄리조트골프장 블루코스(파72·7천266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는 3개로 막고 버디 4개를 잡아내 1언더파 7타를 스코어 카드에 적어냈다.

5언더파 6타의 맹타를 휘두른 공동 선두 헨리 스텐손(스웨덴)과 로버트 앨런비(호주)에 4타 뒤진 공동 10위.

최경주와 같은 순위에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바트 브라이언트(미국), 로리 사바티니(남아공), 톰 퍼시너 주니어(미국)가 자리했다. 코스 난이도가 예년에 비해 한층 높아진

데다 비와 강풍까지 동반한 악천후 때문에 73명의 출전 선수 중 15명만이 언더파 스코어를 냈다. 최경주는 페어웨이 안착률이 57%에 그쳤지만 그린 적중시 평균 퍼트수 1.67개를 기록하며 악조건 속에서도 선전했다.

전반을 보기 1개와 버디 1개로 맞바꾼 최경주는 후반 들어 버디 3개, 보기 1개로 17번홀(파4)까지 2언더파를 쳤지만 18번홀(파4) 보기가 아쉬웠다. 최경주와 함께 초청장을 받은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은 버디 2개를 잡는데 그치고 더블보기 1개, 보기 4개를 쏟아내며 4오버파 7타를 쳐 출전 선수 73명 가운데 공동 59위에 그쳤다. 최경주와 동반플레이를 한 '황태자' 어니 엘스(남아공)는 2언더파 7타를 쳐 공동 7위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 주 끝난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한 '흑진주' 비제이 싱(피지)은 2오버파 7타를 쳐 공동 38위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조령아 4언더 공동 선두

### LPGA 세이프웨이 인터내셔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3년차 조령아(23·농수산소빙)가 '메이저대회 전 초전'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세이프웨이 인터내셔널에서 공동 선두에 나섰다.

조령아는 23일(한국시간) 애리조나주 슈퍼스티션마운틴의 슈퍼스티션마운틴골프장(파72·6천629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4언더파 6타를 쳐 카트리나 매튜(스코틀랜드)와 함께 순위표 맨 윗자리를 꿰찼다.

세이프웨이 인터내셔널은 30일 개막될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나비스코챔피언십을 대비해 상위 랭커들이 빠짐없이 출전한 비중있는 대회.

2005년 LPGA 투어에 데뷔하던 해 상급랭킹 47위, 작년에는 상급랭킹 56위 등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지 못했던 조령아는 난생 처음 선두 자리에 올라 우승 경쟁에 뛰어들 발판을 마련했다.

조령아는 7번홀(파5)에서 더블보기로 흠아우리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버디를 7개나 뽑아내는 신들린 샷으로 돌풍을 예고했다.